

地域경제 活性化 견인차 역할 다짐

본지 창간 18주년 기념식 성황 이뤄

포천신문 창간 제18주년 기념식이 12월15일 송우웨딩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의장을 비롯해 고조흥 국회의원,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황영철 포천시장 권한대행, 박운국 전 포천시장,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 회장 등 내빈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학생명예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호열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포천신문은 언제나 바른뉴스를 모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신속·정확하고 다양하게 보도하여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여 왔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재와 기획보도를 통해 포천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일하고 정통 있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의 정론을 대변하는 포천신문 창간18주년기념식에 인사말을 드리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포천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후보 포천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이상득 국회의장은 "깜짝 놀랐다. 지역구가 경북



포천신문 창간 18주년에 참석한 내빈여러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으로 여러 개 신문사가 있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시민이 많이 참석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황영철 포천시장 권한대행, 박운국 포천신문사 초대 대표 순으로 축사가 진행되고 이어 이보용 자문위원장, 윤이용 운영위원장, 이상일 조사위원장, 박해자 주부명예기자단장,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이 창간 18주년을 맞아 참석한 내빈과 독자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송호동 국민연금관리공

단 포천지사장, 양주승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이상갑 (주)꽃샘 종합식품 대표이사,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최인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총무, 양근원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김중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과 박해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에게 홍보 및 독자확보 유공으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포천신문 김영복 편집국장, 포천신문 하승안 취재국장, 포천신문 정병갑 업무국장 등에게 공로패와 부상으

로 금 20만을 증정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날 창간 제18주년을 축하하는 안익수 제3의문회 주간의 축사 "풀들의 몸짓 위에 노래를 하라-포천신문 창간 18주년에 부처-"를 낭송해 포천신문이 명든 휴먼이기에 새삼스럽게 하여 찬란한 꽃봉오리 터져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포천신문은 1990년1월15일 창간된 이후 2007년12월10일 현재까지 397호를 발행하여 포천사회의 여론형성의 중심매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 개최

포천소방서, 유사 재난사고 방지기 위해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12월 13일 오전 9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서장 및 전 소방서 간부와 직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결의문 낭독 및 전 직원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짐과 개인별 안전수칙 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종 재난현장의 사고 사례를 분석

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했다.

포천소방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방송안내 전문요원으로부터 직접 녹음한 소방법령 10가지 안전 수칙을 매일 오후 소방장비 점검 실시전 서내 일제방송시설을 이용 반복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12월 5일에는 119구조대 및

6개의 119안전센터와 지역대 7개소를 서장 및 과장이 직접 방문하여 화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 발생시 맨 먼저 출동하여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고 예방결의 대회 실시와 계속적으로 반복 실시되는 안전사고 방지 및 예방교육으로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 및 조성되어 모든 소방공무원이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2007년 12월 13일 오전 9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33 흑기러기 [Brent Goose]

"검은 목에 하얀 스카프를"

지난 11월 11일 포천전에 그동안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진객이 날아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나가 보았더니 검은 목에 하얀 스카프를 단정히 매고 우아한 자세를 뽐내며 수중보 근처의 수풀 속에서 먹이를 먹고있는 흑기러기 1마리의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반포대교 아래 풀밭에서 1개체가 약 1주일간 머물다 간 기록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내륙지방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는 귀한 겨울철새인 흑기러기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검은 예복을 곁에 차려입은 새신랑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흑기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월동을 하는 매우 귀한 새로 1930년 이후부터 그 수가 크게 감소하여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25호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있는 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시베리아 동부의 북극 지방과 캐나다 서부의 툰드라 지역의 호수나 갯벌 등지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 동해안가를 따라 이동하여 주로 남해안 연안의 전남 여수와 하동 갈사 부근 다대포 지역에서 약 100여 마리 정도가 월동을 하는데, 내륙지방인 포천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아마도 이동하는 무리에서 나오하여 길을 잃고 그간 내륙으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종의 기러기류가 찾아오지만 흑기러기와 개리 2종만을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있는 귀한 철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헌에서 목안(木雁)이라고 부르는 목각 기러기를 신혼배 웨백으로 가지고 갔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는데, 이 흑기러기의 모습에서 그런 신비스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포천전의 조류생태를 관찰해 본 결과 월동기와 번식기 때 이동하는 무리들 중에 회귀조류가 1~2마리씩 찾아오더군요.

포천전은 조류가 이동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통과하는 무리중 나온 새들이 내려앉아 휴식을 하며 체력을 보충하고 그들의 목적지로 날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천폭이 너무 좁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2007.11.12 포천전에서 촬영

않은 실정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10~15일 정도 머물다가는데, 이번에 우리고장을 찾은 이 흑기러기는 딱 5일만에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처음 흑기러기가 발견된 날에는 우리 일행이 풀밭에 숨어 있었더니 비교적 가까운 거리(약 30M)까지 접근하여 수중보위에 걸터있는 풀을 뜯어먹는 자연스럽고 평화스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번식지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극(極)지방이어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그다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위낙 귀한 녀석이라 다른 탐조인들에게도 이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제한된 공간에 공개를 했더니, 그만 너무 많은 탐조인이 찾아오게 되었고 예쁜사진만을 찍겠다는 과욕

로 무리하게 접근하였고 심지어는 개울물 속에까지 사진기를 갖다 들고 촬영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흑기러기는 11월16일 홀연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진객인 흑기러기가 편안히 쉬며 체력을 보충한 후 무사히 떠나간 후에 소개하지 않고 미리 공개한 것이 무척 후회스러웠으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예쁜사진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새를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탐조하는 성숙한 탐조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봅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ADONIS HOTEL 스페셜 이벤트

각종 연말모임은 아도니스호텔에서

SPECIAL MENU

- 식사류 - ₩ 8,000 ~ ₩15,000 (중국식/이태리식)
 - 요리류 - ₩15,000 ~ ₩30,000 (중국식/이태리식)
 - 세트류 - ₩25,000 ~ (중국식/이태리식)
 - 뷔페류 - ₩35,000 ~ (50인 이상 가능)
- V.A.T 별도

소모임부터 대형연회까지 다양한 혜택제공

- 사전 예약 시 차량 운행 가능 (15인승, 30인 이상 대형버스 운행)
- 식료 10%DC (주류별도)
- 대형 연회장 무료 대여
- 호텔 내 노래방 및 노래방 기기 대여 2시간 무료

예약 및 문의 : 031)530-9300~2 / 530-9321

http://www.adonisresort.com/

